

#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their Sociali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

Kyung-Sook Kim\*, Duk-Nam Lee\*\*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which improves the performance of 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 The key idea of this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is to minimize execution time of each job and to maximize the system throughput by effectively using system resource such as CPU, memory. Also, this strategy dynamically allocates job by considering demanded memory size of executing job and workload status of each node. If an overload node occurs due to allocated job, the proposed scheme migrates job, executing in overload nodes, to another free nodes and reduces the waiting time and execution time of job by balancing workload of each node. Through simulation, we show that the proposed dynamic workload balancing strategy based on CPU, memor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high-performance computing system compared to previous strategies.

▶ Keyword : Allocation, Workload, Migration, Load balancing, Simulation

## I . Introduction

현대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었지만 반면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가족해체의 가속화는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치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시기의 가족해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적 이탈과 학교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이나 진로선택 등의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 경쟁은 또래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교사와의 인격적인 결여로 학생들은 긴장감과 강박관념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2].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적 불평등은 청소년들의 기회와 보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3].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이 청소년의 정신문화와 사회성함양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

에서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5].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6].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지닐 때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삶의 태도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 준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위기가 닥칠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과 존재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고 성취해야 할 많은 과업과 동시에 미성숙 된 심리상태로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함께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청소년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불안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되며, 부모, 교사, 또래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7,8].

• First Author: Kyung-Sook Kim · Corresponding Author: Duk-Nam Lee  
\*Kyung-Sook Kim(kkysuk1@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Duk-Nam Lee (waseda88@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Received: 2015. 11. 02, Revised: 2015. 11. 12, Accepted: 2015. 11. 16.

따라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상호작용하여 잘 발달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낮은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사회부적응을 일으켜 문제가 되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절실하게 필요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도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2.1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유능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체험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다[10].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진취적인 삶을 전개한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다[11].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태도를 지니게 될 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실한 마음과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12]. 특히 개인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부모나 또래친구, 타인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더불어 그들의 격려 및 지지 등의 인간관계를 통해 발달된다[13].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잘 발달되지 못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퇴를 하는 등 학습에 있어서도 우울증과 무기력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14]. 이러한 연구를 살펴볼 때 청소년들이 자기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믿음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아실현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15].

### 2.2 Sociality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사귀면서 유기체의 사회 적응성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사회성이라 한다. 또한 인간은 출생과 함께 사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성은 사회활동 및 집단 활동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것[16]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성은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발달하게 된다.

최상열(2005)에 따르면 사회성을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 형성된 습관 및 타인과 쉽게 사귀고 사회활동을 즐기며, 이웃과 더불어 협동하고 기질이 까다롭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17].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과 집단 활동을 즐기고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며, 친구를 잘 사귀는 의협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다소 사회성이 떨어진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있어 부적응을 보이고, 또래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성 5가지 하위개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부지런하고, 일을 즐기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셋째, 지배성은 단체생활에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좋아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넷째, 사교성은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며, 친절하고 사교적인 인간관계가 원만한 성격을 말한다. 다섯째, 자율성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과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사고 및 문제해결방안을 말한다[18,19].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는 사춘기 이후로 청소년기는 모든 발달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적인 발달이 촉진되고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더욱 확고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사회성은 사교적이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특성으로 정의하고자한다.

## III. Research design

### 3.1 Establishment of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간의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서 청소년의 지도성과 신뢰성을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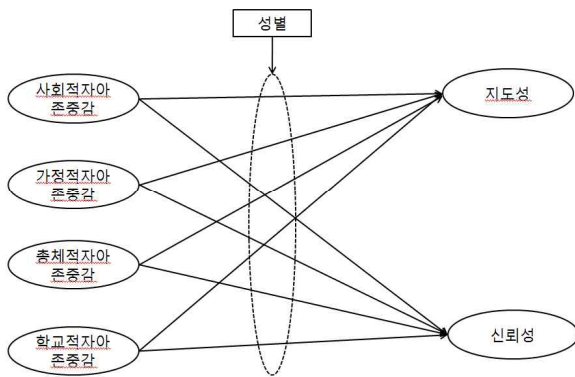


Fig.1. Research Model

Table 1. Research Hypothesis

Type	Description
Hypot he sis1	The adolescents' social self-esteem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dership. 1-1. The adolescents' social self-esteem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leadership by gender.
Hypot he sis2	The adolescents' social self-esteem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liability. 2-1. The adolescents' social self-esteem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reliability by gender.
Hypot he sis3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home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dership. 3-1.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home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leadership by gender.
Hypot he sis4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home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liability. 4-1.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home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reliability by gender.
Hypot he sis5	The adolescents' global self-esteem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dership. 5-1. The adolescents' global self-esteem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leadership by gender.
Hypot he sis6	The adolescents' global self-esteem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liability. 6-1. The adolescents' global self-esteem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reliability by gender.
Hypot he sis7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school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dership. 7-1.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school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leadership by gender.
Hypot he sis8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school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reliability. 8-1. The adolescents' self-esteem at school will show difference in their reliability by gender.

### 3.2 Control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전귀연(1993)이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y)와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CSEI): (Coopersmith, 1967, 1981)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자아존중감 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20,21].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하위척도 Cronbach's  $\alpha$  = 사회적자아존중감(.810), 가정적자아존중감(.776), 총체적자아존중감(.604), 학교자아존중감(.621)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이종승(1999)이 개발한 '최신 인성, 정서진단검사' 중에서 사회성 관련 문항을 뽑아 이를 수정, 보완하여 총 15문항으로 사용하였다[22]. 사회성 하위 요소는 수용성, 사교성, 협동성, 지도성, 안정성, 자율성, 근면성, 신뢰성, 준법성, 자주성, 봉사성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지도성(.603)과 신뢰성(.742)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5년 5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 하였다. 총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Empirical Analysis

### 4. 1 Measurement tool verification

#### 4.1.1 Valid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총 18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 .854,  $\chi^2$ : 4268.604, df는 153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0.6이상으로 측정도구가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사회성은 총 7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 .776,  $\chi^2$ : 1142.515, df는 21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23].

#### 4.1.2 Reliability analysis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alpha$  이 0.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수인 사회 자아존중감 .810, 가정 자아존중감 .776, 총체적 자아존중감.604, 학교 자아존중감 .621이며, 사회성의 하위변수인 지도성 .603, 신뢰성 .742로 나타났다.

### 4.2 Hypothesis verification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과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2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400,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계수 1.163,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과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과 4에서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046, p값 .422)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계수 .003, p값 .926)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과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와 6에서 청소년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167, p값 .003)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계수 .066, p값 .044)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과 신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과 8에서 청소년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계수 .009, p값 .915)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계수 .250,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Hypothesis	Path coefficient	C.R	p	Accept / Reject
1	Social self-esteem → Leadership	.400	5.429	.000**	Accepted
2	Social self-esteem → Reliability	1.163	11.587	.000**	Accepted
3	Self-esteem at home → Leadership	.046	.802	.422	Rejected
4	Self-esteem at home → Reliability	.003	.092	.926	Rejected
5	Self-esteem at school → Leadership	.167	2.941	.003**	Accepted
6	Self-esteem at school → Reliability	.066	2.010	.044*	Accepted
7	Self-esteem at school → Leadership	.009	.107	.915	Rejected
8	Self-esteem at school → Reliability	.250	4.346	.000**	Accepted

### 4.3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1-1에서 8-1까지 조절효과분석을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다.

첫째, 가설 1-1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390, 여 .401)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121이며, p값은 .728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가설 2-1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1.170, 여 1.032)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190이며, p값은 .663으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둘째, 가설 3-1에서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003, 여 .073)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525이며, p값은 .469로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가설 4-1에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005, 여 .008)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005이며, p값은 .945로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셋째, 가설 5-1에서 청소년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135, 여 .227)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2204이며, p값은 .138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가설 6-1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108, 여 .021)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345이며, p값은 .557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넷째, 가설 7-1에서 청소년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120, 여 .167)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708이며, p값은 .400로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가설 8-1에서 청소년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표준화경로계수 : 남 .229, 여 .213)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4.996이며, p값은 .025로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남학생 집단에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Analytical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Hypothesis	Non-constraint model		Constraint model			Difference
	Path coefficient		$\chi^2/df$	$\Delta\chi^2$	p	
	Male	Female				
1-1 Social self-esteem → Leadership	.390	.401	1416.571/ 523	.121	.728	None
2-1 Social self-esteem → Reliability	1.17 0	1.03 2	1416.640/ 523	.190	.663	None
3-1 Self-esteem at home → Leadership	.003	.073	1416.975/ 523	.525	.469	None
4-1 Self-esteem at home → Reliability	.005	.008	1416.455/ 523	.005	.945	None
5-1 Global self-esteem → Leadership	.135	.227	1418.654/ 523	2.204	.138	None
6-1 Global self-esteem → Reliability	.108	.021	1416.795/ 523	.345	.557	None
7-1 Self-esteem at school → Leadership	.120	.167	1417.158/ 523	.708	.400	None
8-1 Self-esteem at school → Reliability	.229	.213	1421.446/ 523	4.996	.025*	Found
Non-constraint model( $\chi^2/df$ ): 1416.450/522						

\* :  $p \leq 0.05$ , \*\* :  $p \leq 0.01$ 

## V.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들의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지도성과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용학(2006)과 강대철(2011)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지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또래와 학업에 관한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능력과 외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또래와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아, 교사관련 자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사회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을 볼 수 있다[24,2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바른 인생관을 함양하는 시기가 되는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과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성적에 의해 친구, 부모님, 교사에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달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지도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평가항목이며,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나 목표 및 가치체계를 탐색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 선생님, 멘토, 친구 등 타인들을 통해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속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셋째,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것이며,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통해 또래집단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평가는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함이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신뢰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남학생 집단에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은 청소년의 성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에 성별차이가 있다는 연분홍(2014)의 연구결과와 [27], 백창흠(2005)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28]. 또한 최희영(2005)의 연구와 [29], 서정걸(200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30].

따라서 담임선생님이 남자교사 일 때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을 인정해 주고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는 남자교사는 사춘기에 있는 남자청소년들을 더 잘 이해주고 믿음을 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결과로 비추어진다. 이 연구의 결과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을 서울·부산·대구·대전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일반화해서 연구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과 여러 변인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양적혼합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따라 분류기준과 개념정의가 상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정의 및 표준화된 척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Baek Bong-ryeol.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Sociality, School Resilience to Create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ce." Ph. D.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12.
- [2] Park Dong-seon. "Influence of Leisure Experiences on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Adaption of School Life of Middel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5.
- [3] Baek Bong-ryeol.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Sociality, School Resilience to Create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ce." Ph. D.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12.
- [4] Cho Hui-il. "Study on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volunteering activit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Ph. D. Thesis, Soongsil University. 1990.
- [5] Cho Yong-hak. "The effect of volunteering activity on the teenagers' self-esteem and sociability,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2006.
- [6] Shim Hee-yeong. "The Impact of Youth Leisure Activities on Sociality Development and Self-Respect." Mas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08.
- [7] Cho Yong-hee. "Effect of Cyber Counseling On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of Adolescent."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08.
- [8] Park Ji-ye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9] Cho Yong-hee. "Effect of Cyber Counseling On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of Adolescent."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08.
- [10] Park Eun-sook.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ve Tendency on the Self-esteem and Leisure Activit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7.
- [11] Kim Yeong-sook. "Study on the Children's Self-esteem Variables."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2.
- [12] Kim Mi-seon. "The Effects of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s on the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School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 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 2009.
- [13] Lee Jae-nam. "The Effects of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Improvement and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M. 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04.
- [14] Lee Yong-ja.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on Learned Helplessn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15] Park Ji-ye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16] Baek Bong-ryeol.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Sociality, School Resilience to Create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ce." Ph. D.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12.
- [17] Choi Sang-yeol.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for the Social Improvement of the Maladjusted Teenagers in the School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5.
- [18] Choi Seun-won. "Study on Self-concept and Social Development i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4.
- [19] Shim Hee-yeong. "The Impact of Youth Leisure Activities on Sociality Development and Self-Respect." Mas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08.
- [20] Coopersmith,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CA:Freeman and Company. 1967.
- [21] Coopersmith,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1981.
- [22] Lee Jong-seung. Emotion and Personality Diagnostic Test, Hakjisa, Seoul. 1999.
- [23] Lee, Hak-Sik, Im, Ji-Ho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6.0, Seoul: Bupmunsa. 2007.
- [24] Kang Dae-cheol. "Spor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 Impac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1
- [25] Cho Yong-hak. "The effect of volunteering activity on the teenagers' self-esteem and sociability,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2006.
- [26] Kang Dae-cheol. "Spor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Impac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1.
- [27] Yeon Bun-hong.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Leisure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ole Performance and Adolescents' Self-Esteem." Ph.D.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14.
- [28] Baek Chang-heum. "The Effect of Social Development on Physical Education of Specialty and Aptitude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5.
- [29] Choi Hee-yeong. "Study on the Self-esteem of Youth." Master's Thesi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005.
- [30] Seo Jeong-geol. "Relations betwee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and Sociality Development of Youth." Master'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3.

## Authors



Kim Kyung-Sook received the M.S. and Ph.D.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South Korea,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Dr. Kim lectured on social welfare at Chosun University's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nd Welfare and its graduate school. She lectured on social welfare and child care at Songwon University, Koguryeo College and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and for Chosun University's degree program based o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Dr. Kim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She is interested in youth welfare, elderly welfare, childhood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actices & policies.



Lee Duk nam received a ph.D degree in 2012. Dr. Lee lectures at the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in Chosun University and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She is interested in multi-cultural family, family welfare, adolescent welfare and social welfare practice.